

전주시, 내년도 국가예산 1조 7287억 확보

‘산업·경제’ 6200억·‘환경·도시’ 4667억·‘문화·관광’ 667억·‘복지·사회안전망’ 5753억원

전주시가 영화·영상산업과 정원산업 등 미래 신산업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또 전주야구장 리모델링과 전주역사 전면 개선 관련 예산도 확보해 도시기반시설 강화에도 탄력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올해 1조 6072억 원보다 1215억 원(8%) 늘어난 1조 7287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국가예산의 분야별 규모는 △산업·경제 분야 104개 사업, 6200억 원 △환경·도시 분야 68개 사업, 4667억 원 △문화·관광 분야 30개 사업, 667억 원 △복지·사회안전망 분야 92개 사업, 5753억 원이다.

이중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규사업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랩 구축 등 산업·경제 분야 26건(355억)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등 환경·도시 분야 16건(275억)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관광 분야 7건(17억)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복지·사회안전망 분야 16건(109억) 등이 있다.

먼저 산업·경제 분야에는 영화·영상산업과 정원산업, 탄소산업 등 가장 전주다운 미래 신산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영화 효과음원 유통시장 구축을 위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랩 구축(10억)’ 예산부터 차세대 영상 제작 기술인 버추얼 프로덕션(VP) 시장을 선점하고 특성화 세트를 갖추는 ‘K-Film 제작 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5억)’ 예산,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10억)’ 예산 등이 확보돼 영화·영상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시는 또 ▲꽃심 지방정원 가든센터 건립(3억)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20억) 등 ‘전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올해 1조 6072억 원보다 1215억 원(8%) 늘어난 1조 7287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프로젝트와 정원산업 육성을 꾀할 예산을 확보했으며, 탄소소재 소재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원(91억) 등 탄소산업과 같은 주력 신성장 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끌 예산도 따냈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과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환경·도시 분야 예산도 확보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74억)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생산시설 설치(30억) △자연생태관 탄소중립모델 구축(40억) △매립지 순환이용장비(4억) 등 환경 분야의 의미 있는 예산을 쉼겨했으며, 도시 분야 ‘전주야구장 리모델링(30억)’ 예산도 확보해 야구 동호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전통문화자원의 확산과 국제적 수준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 전통문화자원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7억) △전주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 활용 학습·체험(5억) △한옥마을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9.9억) 등이 포함됐다. 한식·한옥·한지·판소리 등

전통문화원형 자원을 ICT 기술을 활용해 재해석한 혁신공간이 조성되고, 흑석골 전통한지 생산시설에서 한지 원형을 학습·체험하고 가치를 확산시킬 프로그램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75억) △완산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26억) △열린 관광환경 조성(7.5억) 등 이동 불편이 없는 관광지, 나아가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따냈다. 따뜻한 포용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따냈다.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1.9억)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설치(24억)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10억) △금상지역 재해위험지역 정비(9.3억)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국회 막바지까지 반영 여부가 불확실했던 △전주야구장 리모델링(30억)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1.9억)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20억)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91억) 등 신규사업을 비롯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7억)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5억) △전주 독립

영화의 집 건립(10억) △한국탄소산업 진흥원 운영(376억) 등 계속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정부부처와 국회를 드나들면서 강행군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전북도와 하나가 돼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운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드문드문 예산을 위한 호남권 드론 종합실기시험장 구축 방안 용역비 확보와 내년 착공을 앞둔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에 꼭 필요한 건립비를 확보하는 등 전주 미래 먹거리와 영화산업에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같이 노력해주신 김승수 시장님과 전주시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전주와 전북의 전략산업인 탄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R&D 활성화,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예산 등의 확보를 통해 전주와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키워내고 시민들의 문화·체육 향유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큰 의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전주시는 물론 전주시 동행의원인 박진 의원, 김승수 의원과 함께 노력해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동행의원들과 함께 전주시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민들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전주발전을 이끌어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주시 공직자와 전북도,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노력했다”면서 “전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세계적인 생태환경도시, 경제산업도시,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시티로

전주시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컨퍼런스 개최

전주시가 메타버스 시대에 대응한 가장 기반의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방향과 민간 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6일 라한호텔에서 ‘디지털트윈-X, 3D 버추얼시티의 미래’를 주제로 ‘2021 전주시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컨퍼런스’를 열고, 온라인(www.jeonju.go.kr/smartcity)으로 생중계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ICT 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에 참여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먼저 공공 분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강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와 사무관은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김 사무관은 “스마트시티

기술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이 돼야 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기반형 스마트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남 전주시 스마트시티과장은 버추얼시티의 미래를 담은 ‘전주시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에 나서 △전주시 권역별 스마트 공간 조성 △도시재생지역 연계사업 △디지털 경제기반 구축 △민관 협력 추진 등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윤상 기자

최송욱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본부장은 LX 국토정보플랫폼의 특징점으로 풍부한 데이터 구축과 공간정보 서비스 큐레이팅, 자원생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꼽으며, 플랫폼이 향후 행정지원 서비스,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안전생활 서비스 등에 더욱 널리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진아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트윈사업단 차장은 수소차충전소 입지분석부터 결빙 취약구간 도출, 실시간 도로 위험물 탐지 서비스 등의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박소아 (주)바이브컴퍼니 더스마트센터장이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거울 세계형 메타버스 플랫폼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으며, 김재환 에이모 본부장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희대 대구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은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방안과 스마트 커뮤니티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재민 전북은행 디지털전략부 대리는 ‘메타버스 기반, 지역 소상공인 커머스 몰’을 주제로, 진득호 에픽게임즈 코리아 과장은 디지털트윈 기술과 언리얼 엔진이 만나 만들어지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제언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온두레공동체 탄소중립 업무협약

전주지역 온두레공동체들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6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공동체협의회(회장 김성국)와 9개 탄소중립 실천 온두레공동체와 함께 ‘전주시-온두레공동체 탄소중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탄소중립 실천 온두레공동체는 △우정목련아파트 환경사랑공동체 △다올골짜기 △EM지구 환경 지킴이 △동화나래연구소 △송천자이비 △BCO올림 △전주&전북 알뜰맘 △프리미코 △착한사람들 등으로, 향후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탄소중립 교육과 자원과 에너지를 절

약하는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전주지역 온두레공동체에서는 △공동체 활동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 참여 △기후변화 인식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가정 내에서 전력소비 최소화 및 에너지 소비 줄이기 노력 △저탄소 인증제품 사용하기 △유통 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우리지역 농축산물

구매하기 △대중교통 및 친환경차량 이용하기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정상택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탄소중립 실현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 시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면서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작은 부분부터 탄소중립 실천에 노력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꽃길 조성사업 추진

전주시가 도로변 자투리땅이나 소규모 공한지, 수목구 등에 꽃을 심어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이날 말까지 7개소에서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꽃길가든은 아스팔트 가득한 도심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고자 보도블록 등 깨어진 틈이나 자투리 공간에 파종하거나 꽃을 식재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대상지는 △문화관광로(노송광장~오거리광장) △우아동2가 868-6 △송천동1가 113-36 △중화산동2가 644-1 △평화동2가 458-106 △월드컵경기장 일원 △기지지 수변공원 산책로 등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